

인간이 혼자 살지 않고 결혼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결혼을 하는 이유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어느 한 가지 때문이 아니라 다양한 욕구들이 복합되어 있다. 가장 큰 것은 역시 종족보존의 본능이다. 자신의 핏줄을 후대에 계속 남기고 싶은 무서운 동물적 본능은 인간을 혼자 살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

그 외에도 드러내놓고 표현하지는 않지만, 성적 욕구의 해소도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또 이 거대한 세계 속에서 함께 의지하며 살아갈 동반자를 찾고자 하는 욕구도 있다.

그러나 결혼은 남녀의 성비율이 맞다고 해도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누구에게나 호감을 줄 수 있고 결혼하기 좋은 조건을 갖고 있는 사람은 소수다. 그들도 각자 서로가 결혼에 합의할 수 있기까지는 많은 변수가 내포되어 있다. 결혼은 두 사람의 영혼이 결합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서로가 원하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상대방을 충족시켜줘야 한다.

우리 사회의 근간을 이루고 있던 농촌경제가 붕괴되기 시작한 80년대 이후, 농촌 젊은이들의 결혼이 사회 문제화 되기 시작했다. 도시자본이 농촌으로 침투하면서 농민층이 붕괴되었고 이농현상이 촉진되었으며 결국 농촌을 떠난 사람들은 도시 번두리의 빈민으로 유입되면서 거대 도시 문제를 야기시켰다.

그러나 문제는 여전히 농촌이다.



**불자 세상보기**

하재봉  
문화 평론가

**사랑도 인권도 없는 결혼**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도시와 농촌의 소득 격차가 커졌고, 정보화 사회의 문명화 된 삶은 도시를 기반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어린시절부터 도시문화에 익숙해진 젊은 여성들은 농촌 젊은이들을 자신들의 결혼 상대에서 배제하기 시작했다. 농촌에서 자란 여성들까지 오히려 결혼을 통해 농촌을 떠나 도시로 갈 수 있는 기회로 생각했다. 농촌 거주 남성들의 미결혼 사태는 어느 특정한 경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90년대 이후 전체적인 현상이 되었으며 90년대에는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다.

2천년대 들어서면서 결혼 하지 못하고 혼자 사는 농촌 남성들이 누적되면서 어떤 극적인 돌

파구가 필요해졌다. 90년대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면서 남북문제가 유연성을 띠기 시작하자, 같은 동포인 중국 조선족 출신들을 아내로 맞으려는 움직임이 광범위하게 형성되었다.

이때만 해도 농촌 젊은이들의 신부감은 우리와 같은 민족인 조선족이었다. 문화적 갈등은 있지만 민족적 언어적 갈등은 거의 없었다.

그러나 중국의 경제적 지위가 향상되면서 결혼을 통해 신분상승을 꾀하고 물질적 욕구를 해소하고자 하는 동남아시아의 저개발국기들, 영아권 사용국인 필리핀이나 베트남 여성들이 새로운 신부감으로 등장했다.

한국 농촌 남성들과 결혼을 원하는 여성들은,

한류 드라마를 통해 낮아진 한국에 대한 동경감이 한국 농촌에 대한 현실을 잊게 만들어서, 막상 결혼해서 농촌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면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커다란 괴리를 경험하게 된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동남아시아 신부들을 대상으로 한 국제결혼은,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한국인과의 결혼을 통해 합법적인 한국 국적을 취득한 뒤 취업을 통해 본국에 있는 자신의 가족을 부양하고 자신의 생활을 향상시키려는 계획적인 사기라는 음모론에는, 그 한쪽 당사자인 한국 남자들의 결합이 숨어 있다. 신부를 자신과 동등한 인간으로 생각하고 사랑으로 보살폈다면 이런 비극들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돈에 끌려온 신부라는 선입관으로 자신의 아내를 폭행과 욕설로 대하는 남편이 존재하는 한, 올바른 결혼이 정착될 수는 없다. 신부가 더 나은 생활을 꿈꾸며 돈에 '팔려왔다'면, 신랑 역시 여러 가지 인간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돈으로 신부를 '사왔다'는 원죄가 있는 것이다.

결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 본능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베트남이나 필리핀 신부를 맞이했다면 파국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다.

좀 더 나은 생활을 위해, 그리고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한국으로 오는 신부들이나, 그들을 통해 자산을 놓고 자신의 인간적 욕구를 해소하려는 신랑들이나, 서로의 결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먼저 되어 있어야 한다.



**불자의 눈** 논설위원 기명사설

11월 13일 조계종 제 14대 중앙종회가 출범했다. 첫 정기총회에서 인적 구성과 조직을 구비하는 절차를 수행했고, 분과별 감사활동을 개시하는 등 일정들이 진행되고 있다.

개원 첫날부터 10여개 안건 처리 과정에서 8시간에 걸쳐 진행된 4번의 투표와 토론이 격렬해져 각 과파적 입장과 선거 과정의 양극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채 표출되고 있어 향후 종회 활동의 걸림돌이 될 소지가 보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본분철주(本分鐵柱) 자기명근(自己明根)을 점검하고 파사현정을 가려서 불초의 강령을 실천'해달라는 종정 스님의 개인법어를 추상감이 여겨야 할 것이다. 새로 구성된 14대 중앙종회에 거는 기대가 크다. 원용화합의 자세로 생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종회활동을 전개해달라는 것이 사부대중의 바람이다. 이전의 종회가 결코 화합적인 모습으로 일관되지 못했음을 반성하는 자세가 우선되기를 주문해본다.

**조계종 중앙종회 화두 '화합'**

앞으로 많은 입법활동과 각종 사안을 심의 의결하는 회의를 열게 된다. 이미 총무원으로부터 예산안과 종회위원 선거법 개정안 등 기타 종원총법 개정안들이 상정돼 있다. 입장에 따라서는 어느 정도 문제성을 띠는 부분도 필경 있을 것이다. 그런 만큼 종회에서 다루는 사안이나 종책을 세우는 발상과 실천의 요령에 대해 종회위원 나름대로 제과나 문종의 입지를 염두에 두기보다는 불법의 근본에 바탕한 청정한 법규를 따르는 자세를 견지하여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종원총법에 근거하여 합리적이고 분별력 있는 안목으로 합의체로서의 의회정신을 살려야 한다. 사안에 따라서는 철두철미하게 시비를 가릴 일도 있을 것이고, 또 두루 아울러 조화해내는 일도 있을 것이지만, 미분별 타협이나 불순한 동기의 안배로 무마하고 처리해 나가서는 안 된다. 것을 명심했으면 한다.

총무원에 대한 견제와 협조라는 조화요소를 추구하는 일이, 친여적이나 아니냐의 대립적 사고에서 출발하지 않았으면 한다. 종회를 권력 구조와 각 과파간의 대립장으로 만들어서도 안 된다. 의원님들께 개인 면모를 본다면 충분히 대중의 신망 속에 훌륭한 역할을 한껏 발휘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이 높다.

최순열(동국대 국어교육학과 교수)

**특별기고**

**달마도를 '상품화' 하지 말라**

범주(속리산 달마선원장)



많은 사람이 업장이 두터운 사람, 곧 마음이 어두워진 사람이라는 것이다. 업장과 마음의 어둠과 삶의 고통은 비례하는 것이다. 삶의 고통은 마음이 어두워져서 오는 것이기에 마음이 밝아진 만큼 그 사람의 삶이 전반적으로 밝아진다.

불교의 모든 수행법은 어두워진 마음을 닦아서 밝은 마음으로 바꾸기 위한 방법으로 마음이 밝아진 만큼 그 사람의 지혜와 자비심이 커가는 것이다. 커진 만큼의 삶이 행복해진다는 말이다. 진정 복을 받는 길은 마음을 닦은 만큼, 마음이

마도를 통해 밝은 기운을 나눠주는 방법이다. 수행의 밝은 기운(불성의 기운)은 사람들의 어두운 기운을 없애주므로 어두운 기운이 사라진 만큼 어두운 일들도 사라지게 된다.

그러기에 수행하지 않은 어두운 마음과 기운만으로는 아무리 잘 그리는 손재주가 있다고 해도 의미가 없다. 오랜 수행을 통한 밝은 기운으로 그린 달마도는 사람의 삶을 밝게 변화시켜주지만, 반면 사기, 신기, 탁기로 그린 달마도는 사람의 마음에 어둠을 더해주기 때문에 어두운 일을 불러오는 결과가 된다.

탁한 기운으로 그린 달마를 돈을 목적으로 판다면 그것은 공해물을 나눠주는 것이다. 달마도를 그리는 사람이 그림을 통해서 마음 닦는 수행의 자세를 꾸준히 정진한다면 무아의 상태에서 용필을 하게 되고 바로 그때 본성의 기운이 전이된다.

달마도는 그리는 사람에겐 수행의 방법이여야 한다. 밝은 기운으로 그린 달마도는 사람들의 마음을 밝게 만들어 여든 삶에서 밝은 삶으로 바꿀 주는 하화중생의 포교방편이 되는 것이다.

달마도에서 가장 중요시 되는 것은 오랜 수행을 통한 밝은 기운으로 마음이 바뀌도록 하는 것이다. 더불어 오랜 필력의 정진으로 밝은 기운과 필력이 조화를 이루는 데에 있다. 그래야만 진정한 달마도가 완성되는 것이며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달마도의 바른 이해와 정립은 곧 불교를 바로 세우는 한 방편이기도 하다. 밝은 기운과 필력의 조화로 그려진 달마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어두운 마음을 정화시켜 불교를 바르게 포교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최근 MBC 'PD수첩'이 '달마가 흡소평으로 간 까닭은?' 편을 통해 수백 차단 효과를 강조하며 흡소평에서 판매하는 달마도가 수백 차단 효과를 내는 내용을 방송했다. 방송위원회 역시 최근 비과학적 내용의 달마도 흡소평 광고를 방송하는 홈TV방송의 채널 흡소평에 대해 중징계를 결정했다. 달마도의 상품화가 시작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한때 일부 방송에서 수백차단 효과를 공공연하게 떠들어 달마도의 판매 호황을 이루기도 했지만 불교에서 수행의 일환인 달마도를 신묘한 효능을 가진 부적취급하며 상품으로 다루기에 달마도의 본질을 왜곡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오랫동안 달마도 수행을 해온 범주 스님(속리산 달마선원장)이 달마도의 상품화를 우려하는 기고문을 보내왔다.

달마도는 부처(符籙)가 아니요, 달마대는 미신적(迷信的)인 도사가 아니다. 요즘 달마도가 인기이다보니 별의별 사람들이 달마도를 대량으로 그려 가히 달마도의 풍년을 이루고 있다. 이것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달마도 때문에 불교가 많이 포교 되겠다'고 잘못 생각하는 우를 범한다.

우주 자연은 그대로 불교이다. 불교를 오도시키고 달마대사를 미신도사로 모독하는 일은 불교를 망되게 하는 일임을 알아야 한다. 달마도의 진정한 가치는 어디에 있는가? 달마대사는 석가모니 부처님으로부터 법통을 잇는 제28대 조사이며, 불법을 인도에서 중국으로 전하였고 정법해신인 선불교의 원조가 되는 대도인이다.

달마대사 말씀에 '직지인심(直指人心) 건성성불(見性成佛)'이란 말이 있다. 이는 '사람의 본

**선묵화의 좋은 소재... 돈 목적으로 그린다면 '공해'**

심을 바로 깨닫고 본성을 발견하여 본성과 하나가 되면 곧 부처에 이른다'는 말이다.

즉, 인간이 인간 본래의 성품과 하나가 됐을 때 육도윤회의 고통을 벗어난 불생불멸의 존재가 된다는 것이다. 영원히 고통을 벗어난 존재가 되는 것이 곧 최상의 희망인 성불의 단계인 것이다. 인간은 본래 불생불멸의 존재로서 누구나 불성을 가졌다는 말이다.

이 몸을 갖고 살아오면 이 몸이 나라는 착각과 집착에 의해서 아상(我相)이 생기고 그 아상(我相)으로 인해서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오면서 업(業)을 쌓아오게 된다. 업이란 곧 마음의 때인 것이다. 마음의 때가

밝아진 만큼 복을 받게 되는 것이다. 부처님의 복은 우주에 가득 차있다. 마음이 열린 만큼 복을 받게 되는 것이다.

업장은 닦지 않고 망념으로 마음속에 불성을 만들어 놓고 자기욕심을 이루어 달라고 미신적으로 빈다고 복이 오겠는가. 마음을 닦은 만큼 업장이 녹아지고 그 만큼 밝은 마음으로 변해간다. 이렇게 마음을 닦아서 완전히 어두운 마음이 사라질 때, 영원한 생명인 불성과 하나가 될 때, 이것을 성불이라 하는 것이다. 이것이 달마 스님이 말씀하신 불교정법의 핵심 요지이다.

달마도는 선묵화의 한 소재이다. 선묵화란 수행을 오래한 스님들이 밝은 기운으로 그려서 달



**실기 훈련을 위주로 하는**  
**설법연수생 모집**

- **교육목표**  
각 개인별 특수성을 파악하여 설법의 실기 연수과정을 통한 능력배양, 자료를 재구성할 수 있는 수준으로 향상시킬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 **교육내용**
  1. 정체성 확립(가치관&성격)
  2. 단전호흡의 이론과 실제
  3. 설법의 개념 및 부처님의 5종 설법
  4. 설법자료에 의한 연수
  5. 음성언어와 몸짓언어의 실제
  6. 원고작성법(자료의 재구성)
  7. 표현상 修辭 및 논리상의 修辭
  8. 상담&대화의 이론 및 실제
  9. 회의진행법, 토론 및 각종 사회진행 요령
  10. 인사말, 축사, 격려사, 주례사 등 요약
- ◆ **특징 : 비디오 촬영 - 모니터링**
- ◆ **모집 : 종합반 - 수시접수 5명 이내**  
※ 맞춤형 개인지도 - 총 8회과정

◆ 문의 및 신청 ◆  
TEL 02)747-1567  
H·P 011-248-1567

**한국설법연수원**  
서울 종로구 종로 3가 20(영흥 B/D 4층)  
<지하철 1,3,5호선 종로 3가역 2번출구>

**眞我(참나) 찾는 最短의 지름길!**

- ◎ 業穢(업장)을 해결하고 갑시다.
- ◎ 遺傳(유전)으로 인한 병고에 시달리는 분.
- ◎ 原罪(원죄)해결 방법을 원하십니까.
- ◎ 心, 마음의 병으로 고통 받고 계신 분.
- ◎ "丹"(法輪)을 이루고 싶지 않으세요.
- ◎ 靈氣(영기) 神氣(신기)를 뽑아냅니다.

수행자 여러분! 중국, 미얀마, 히말라야, 티베트 등 각지로 스승을 찾아 헤매고 있지만 그렇다고 진야를 만날 수 있을까요? 내 안에 깊숙이 존재하는 진야! 그 진야는 뜨거운 양기(眞氣)를 키워 수 역겁(億劫)을 살아온, 나로 알고 살아온 바로 그 나를, 가아(假我)를, 쳐 부셔 내야만, 비로소 진야(眞我)는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 하는것을요... 바로 그 "法"으로 인도해 드립니다.

핵심(核心)에 직접 치고 들어가지 못해 수년씩 수행정진(修行精進)을 했다 해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혹은 병의(憑依)되거나 영통(靈通)에 그쳐 도통군자(道通君子)인 듯이 스스로에게 속아 몸과 정신에 악영향(惡影響)을 끼치게 되어 건강을 잃는 불상사를 놓고, 후세(後世)에도 쓰지 못할, 후회(後悔)해도 돌이킬 수 없는 고통의 늪에 빠뜨릴 수 밖에 없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고 맙니다. (遺傳 유전이 될 수밖에 없기에)

이 "法"은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 본인의 수련으로 직접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역사 이래 최초로 공개된 이 최첨단 수련법으로 나를, 참나(眞我)를 찾으십시오. 원하는 이는 누구나 이 법(法)을 전수 받을 수 있으며, 수련과 더불어 자신의 몸과 마음에 법에 녹아들어 法體(법체)가 되어 감을 스스로 확실하게 체험 할 수 있습니다.

본 원에서는 여러분이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수행의 진수(眞髓)를 얻고, 몸과 마음의 건강을 되찾아 새롭게 태어난 "大 自由人" 이 되도록 올바른 길을 인도해 드립니다.

★ 바른 수행인은 절대 藥이 필요없음. 에너지(양기)가 충만해져 모든 병의 근원을 해결할 수 밖에 없기에... 특히 眞理探求에 앞장 서시기를 원하는 우수한 指導者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환영(歡迎)합니다.

서울시 정릉골 普德仙院 院長 올림 02)6081-8373 / 016-327-3772